ashanandbakthiforum.com

비장

다윗의 기도 2 T 7 T 2 T 2 T 2

Lamp and Measuring Basket
등불과 계량 그릇

Read Mark 4:21-23. What is Jesus' special emphasis in the parable of the lamp?

마가복음 4:21-23을 읽어 보라. 예수님께 등불의 비유에서 특히 강조하신 것은 무엇인가?

"Jesus used the light of a candle to represent his doctrines, which illuminate the souls of those who accept them. This light is not to be hidden from the world, but should shine forth to enlighten and bless those who behold it. The instruction received by those who listened to Jesus was to be communicated by them to others, and thus handed down to posterity. He also declared that there was nothing hidden that should not be manifested. Whatever was in the heart would sooner or later be revealed by the actions; and these would determine whether the seed sown had taken root in their minds and borne goodly fruit, or whether the thorns and brambles had won the day. He admonished them to hear and understand him. To improve the blessed privileges then extended to them, would result in their own salvation and through them would benefit others." 2SP 243.1

"예수님은 촛불의 빛을 사용하여 교리를 빛내셨는데 이것은 믿는 영혼들을 비추는 자신의 교리를 표현하셨습니다. 이 빛은 세상에 숨겨져서는 안 되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계몽하고 축복하기 위해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받은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드러나지 않아야 할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조만간 행동으로 드러날 것이며, 그것에 따라 뿌려진 씨앗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가시덤불과 가시덤불이 승리했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고 이해하라고 훈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받은 특권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들 자신의 구원을 가져올 것이며,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것입니다." 2SP 243.1

Read Mark 4:24, 25. What lesson is Jesus conveying with the parable of the measuring basket?

마가복음 4:24, 25을 읽어 보라. 예수님은 계량 그릇의 비유를 통해 어떤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가?

"And with what measure of sincere and earnest thought he listened to his instructions, they would receive like measure of knowledge in return. All who truly desired to understand his doctrines would be fully satisfied; their Heaven-given privileges would increase; their light would brighten unto the perfect day. But those who did not desire the light of truth would grope in darkness and be overcome by the powerful temptations of Satan. They would lose their dignity and self-control, and the little knowledge of which they had boasted when they declared that they had no need of Christ, and scorned the guidance of Him who left a throne in Heaven to save them." 2SP 243.2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얼마나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지식이 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의 교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완전히 만족하게 될 것이며, 하늘이 주신 특권이 커질 것이며, 그들 의 빛은 완전한 날까지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사탄 의 강력한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존엄성과 자제력을 잃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선언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하늘에 보좌를 남겨 두신 그분의 인도를 경멸할 때 그들이 자랑했던 작은 지식도 잃게 될 것입니다." 2SP 243.2

"The measure of the earnestness with which you hear My word, that you may help others, will be the measure by which a knowledge of this word is given to you. To him who listens intently shall be given; for God sees that he will use his knowledge aright. From him who has not improved his opportunities, who has not practiced the truth, that others may share in the blessing of his knowledge, shall be taken away, even that which he has. His opportunity to be all that God designed him to be, receiving and imparting the light of heaven, shall be taken away from him." PUR December 22, 1904, par. 7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 말을 듣는 진지함의 척도는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당신에게 주어지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는 그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 의 기회를 향상시키지 않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의 축복을 공유 할 수 있도록 그가 가진 것조차 빼앗길 것입니다. 하늘의 빛을 받아 전하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기회는 그에게서 빼앗길 것입니다." PUR 1904년 12월 22일, par. 7

Parables of Growing Seed
자라는 씨의 비유

Read Mark 4:26-29. What is the primary focus of this parable?

마가복음 4:26-29를 읽어 보라. 이 비유의 주요 초점은 무엇인가?

"The material world is under God's control. The laws of nature are obeyed by nature. Everything speaks and acts at the command of the Creator. Cloud and sunshine, dew and rain, wind and storm, all are under the supervision of God, and yield implicit obedience to His command. It is in obedience to the law of God that the spirit of grain bursts through the ground, "first the blade, then the ear, after that the full corn in the ear." Mark 4.28. These the Lord developed in their proper season because they did not resist His working. And can it be that man, made in the image of God, endowed with reason and speech, shall alone be unapprecative of His gifts and disobedient to His will? Shall rational beings alone cause confusion in our world?" COL 81.3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자연에 의해 순종됩니다. 모든 것은 창조주의 명을 말하고 행동합니다. 구름과 햇빛, 이슬과 비, 바람과 폭풍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도록 순종합니다. 곡식 아이디 알을 통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처음에는 이파리, 그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이삭 속의 꽉 찬 낟알"(막 4:28 참조). 이것에 4.28. 이것들은 주님의 방식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계절에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이성과 언어를 부여받은 인간만이 그분의 은사에 감사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성적인 존재들만이 이 세상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까?" COL 81.3

"In everything that tends to the sustenance of man is seen the concurrence of divine and human effort. There can be no reaping unless the human hand acts its part in the sowing of the seed. But without the agencies which God provides in giving sunshine and showers, dew and clouds, there would be no harvest. Thus it is in every business pursuit, in every department of study and science. Thus it is in spiritual things, in the formation of the character, and in every line of Christian work. We have a part to act, but we must have the power of divinity to unite with us, or our efforts will be in vain." COL 82.1

"인간의 생계를 위하는 모든 것에서 신성한 노력이 인간의 노력이 결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 인간의 손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수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뿌렸기 과소기, 이슬과 구름을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수확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업과 모든 학문과 과학 분야에서 이러한 것이다. 영적인 일, 인격 형성, 모든 그리스도인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할 몫이 있지만, 우리와 연합할 신성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COL 82.1

Read Mark 4:30-32. What is the important point in the parable of the mustard seed?

마가복음 4:30-32을 읽어 보라. 겨자씨 비유의 중요한 강조점은 무엇인가?

"The germ in the seed grows by the unfolding of the life-principle which God has implanted. Its development depends upon no human power. So it is with the kingdom of Christ. It is a new creation. Its principles of development are the opposite of those that rule the kingdoms of this world. Earthly governments prevail by physical force; they maintain their dominion by war; but the founder of the new kingdom is the Prince of Peace. The Holy Spirit represents worldly kingdoms under the symbol of fierce beasts of prey; but Christ is "the Lamb of God, which taketh away the sin of the world." John 1:29. In His plan of government there is no employment of brute force to compel the conscience. The Jews looked for the kingdom of God to be established in the same way as the kingdoms of the world. To promote righteousness they resorted to external measures. They devised methods and plans. But Christ implants principle. By implanting truth and righteousness, He counteracts error and sin. COL 77.1

"씨앗 속의 세균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생명 원리가 펼쳐지면서 성장합니다. 그 발전은 인간의 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 발전의 원리는 이 세상의 왕국을 지배하는 원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정부는 물리적인 힘으로 지배하고 전쟁을 통해 지배권을 유지하지만, 새 왕국의 창시자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성령은 사나운 맹수의 상징으로 세상 왕국을 대표하지만,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29. 그분의 통치 계획에는 양심을 강요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 왕국과 같은 방식으로 세워지기를 바랐습니다. 의를 증진하기 위해 그들은 외부적인 조치에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방법과 계획을 고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원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와 의를 심음으로써 오류와 죄에 대항하십니다. COL 77.1

"As Jesus spoke this parable, the mustard plant could be seen far and near, lifting itself above the grass and grain, and waving its branches lightly in the air. Birds flitted from twig to twig, and sang amid the leafy foliage. Yet the seed from which sprang this giant plant was among the least of all seeds. At first it was so small that it could be hidden in a hill. Was it strong vitality, and grew and flourished until it reached its present great size. So the kingdom of Christ in its beginning seemed humble and insignificant. Compared with earthly kingdoms it appeared to be the least of all. By the rulers of this world Christ's claim to be a king was ridiculed. Yet in the mighty truths committed to His followers the kingdom of the gospel possessed a divine life. And how rapid was its growth, how widespread its influence! When Christ spoke this parable, there were only a few Galilean peasants to represent the new kingdom. Their poverty, the fewness of their numbers, were urged over and over again as a reason why men should not connect themselves with these simple-minded fishermen who followed Jesus. But the mustard seed was to grow and spread forth its branches throughout the world. When the earthly kingdoms whose glory then filled the hearts of men should perish, the kingdom of Christ would remain, a mighty and far-reaching power." COL 77.2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겨자나무는 풀과 곡식 위로 솟을 듯이 올리고 가지를 가볍게 공중으로 흔들어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들은 나뭇가지와 나뭇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며 잎이 무성한 나뭇잎 사이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식물이 싹을 틔운 씨앗은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언덕만 하여 나왔지만 생명력이 강해서 자랐을 때는 큰 크기에 이를 때까지 자라고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의 왕국은 겸손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지상의 왕국과 비교하면 가장 작은 왕국처럼 보였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주장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맡겨진 강력한 진리 안에서 복음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얼마나 빨랐으며, 그 영향력은 얼마나 광범위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새 왕국을 대표할 만한 갈릴리 농민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 특히 가난과 소수의 숫자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 소박한 어부들과 자신을 연결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거듭 촉구되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자라나서 전 세계로 가지를 뻗어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지상의 왕국들이 멸망할 때, 그리스도의 왕국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권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COL 77.2

더 깊은 연구를 위해

Matt. 13:31, 32 – "Another parable put He forth unto them, saying,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o a grain of mustard seed, which a man took, and sowed in his field: which indeed is the least of all seeds: but when it is grown, it is the greatest among herbs, and becometh a tree, so that the birds of the air come and lodge in the branches thereof."

마 13:31, 32 –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겨자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것과 같으니 모든 씨들 가운데 작아 보이지만 이 는 싹을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으나 자라면 나물 중에 가장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마 13:31 말씀하셨습니다.

Mustard seed being the smallest of all seeds this parable shows that that which is to start the Kingdom will be very insignificant, contrary to all human expectation. Nevertheless, like the mustard plant becomes the biggest of all herbs, so the Kingdom shall grow and become the greatest of all kingdoms. This being contrary to all human planning, it is but natural that those who are like Nicodemus, and continue to be ashamed to be identified with something that is unpopular, hated, and insignificant, will as a result be left out of the Kingdom.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었으므로 이 비유는 왕국을 시작하기 위하여 가장 보잘 것 없는 것이 되리라는 것을 모든 인간의 기대와는 달리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겨자씨가 모든 허브 중에서 가장 큰 허브가 되는 것처럼, 왕국도 성장하여 모든 왕국 중에서 가장 큰 왕국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계획에 반하는 이것은 니고데모와 같이 인기 없고 미움받고 하찮은 것으로 식별되는 것을 계속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왕국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True Christianity is a growth. It is plant-like. Christ Himself is represented as a Branch (Isa. 11:1), and His kingdom as a mustard seed (Matt. 13:31, 32) which after it is planted becomes a tree, the greatest of its kind. But since the literal tree must necessarily feed on physical food, likewise the spiritual tree must necessarily feed on spiritual food, on such as the Branch Itself was fed.

진정한 기독교는 성장입니다. 그것은 식물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나뭇가지(사 11:1)로, 그분의 왕국은 겨자씨(마 13:31, 32)로 표현되며, 심어진 후에는 그 종류 중 가장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의 나무는 반드시 유체적 양식을 먹어야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적인 나무는 반드시 기지 자신이 먹었던 것과 같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합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Whatsapp: (+63)961-954-0737
contact@advancedsabbathschool.org